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활동 상황 보고서 | Volume 17 | 2011년 12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요한복음 12장 26절

2011 년을 되돌아 보며

2011년 올 한해를 돌아보니, 북한에서 진행되었던 사역 하나 하나 마다 그분의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안내하시고 능력을 주심에 너무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그 분의 임재와 당신을 섬기는 기회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이세상의 끝인 동토에 이를 수 있었으며, 살 소망과 건강이 없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를 줄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식과, 약품, 담요는 물론 용기와 기도를 함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와 아름다운 미소, 그들의 환영함과 따뜻함을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되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더욱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은률 결핵 요양원까지 하이킹으로

홍수피해 조사단 멤버, 에디 포이트라스, 평양에 항공으로 도착한 구호품을 확인하고 있다

저희는 올해 3월과 11월 큰 선교여행을 가졌습니다- 이 방문에서 저희는 후원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들과 환자들에게여러분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물건의 도착과 분배를 확인하며, 또한 새로운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5월, 9월 그리고 10월의 방문에서는 여러곳에 진행 중인,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과 12월에는 수해 피해지역의 조사와 수해 복구지원물품의 전달을 도왔습니다. 이번 한해는 사역으로 정말 바쁘게 지냈으며, 다시 한번 이 일을 가능케 한 힘과 은혜, 모든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동역과 신실한 후원 그리고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2011년동안 완성된 사역 보고를 드립니다:

- 5월, 9월 그리고 11월에 걸쳐 국립결핵연구실험실의 국제 인증을 위한 교육연수와 발전
- 국립 결핵병원 수술실의 총 개보수와 수술장비 설치 완료
- 국립 결핵연구병원의 수동식 태양열 그린하우스 설치와 물탱크, 펌프, 관개 수로연결을 설치함
- 여러 곳에서 열렸던 그린하우스 설명회
- 150병상, 적어도 15개 부서에 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개성 결핵병원에 설치 되었던 물탱크, 태양열판, 펌프, 관개파이프등
- 여러 병원에서 열렸던 의료장비 사용과 수리에 관한 기술세미나
- 3곳의 결핵 요양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창문/문/지붕 자재; 개보수가 필요한 여러 요양원을 방문 조사를 마침
- 여러곳의 수로사업 필요를 위한 조사와 연수센터 건설 계획 수립
- 정규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드와이트 린튼 기념 차량의 전달과 헌납
- 개성과 황해도 전역에 있었던 수해 복구를 위한 USNGO의 컨소시움의 일부분으로 얻어진 US 해외재난구재금의 전달과 수해복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보수가 완료되고 수술 장비가 다 준비된어진 국립 결핵병원 수술실

개성 결핵병원 수/온실로 사업을 하고 있는 팀

2011 의 총사역을 돌아보면, 8,252,671달러에 해당되는 1개의 항공컨테이너, 9개의 컨테이너 분량의 물품을 선박으로, 약 162,803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을 3번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수송,북한에 전달하였습니다. 12월 말 전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부터, 한 컨테이너를 중국으로 부터 더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핵 요양원 책임자에게 후원자 명단을 나누고 있는 폴 레이더

이 여정가운데 저희는 환자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하여 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책임자들과 직원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책임자들의 작은 회의실에서, 중한병으로 회복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방에서 나누어질때, 그들은 깊은 감사와 친근함 그리고 극진한 환대로 응답합니다.

드와이트 린튼 기념 차량 헌납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저희 팀과 보건국 직원들, 그리고 국립결핵병원 직원들이 모인가운데 드와이트 린튼 기념 차량 헌납식이 양국의 언어로 이루어 졌습니다. CFK의 이사이신 케이 레이더씨가 시편 121편을 낭독하고, 드와이트의 막내 아들인 샘 린튼과 CFK의 대표이며 조카 며느리인 하이디 린튼이 목사님의 생전의 기억을 나누었고, 은퇴한 구세군 사관이신 폴 레이더사관님께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국어로 헌납기도를 하셨습니다. 고인은 우리 모두에게 "드와이드 아저씨"로 알려졌으며 북한에 보내진 CFK의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이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0년 1월 11일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은파 결핵 요양원을 방문한 CFK팀

CFK는 고인의 조의금을 모아서 CFK의 사역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11명의 승객과 짐을 싣을 수 있도록 가벼운 트럭을 개조한 것으로 CFK의 로고와 이름이 영어와 한국어로 새겨져 북한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최근 방문때-처음으로 시운행을 했던- 이 밴은 저희일행을 태우고, 신작로가 산길로 변하기도 하고, 길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한 19개의 지역 약 3400 킬로(2100마일)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 차량 안쪽 손잡이 가까이에 드와이트 린튼의 사랑과 하나님과 한국인을 섬겼던 삶을 기리는 글과 그를 기념하여 헌금을 한 후원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후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차량을 통하여 더 많은 방문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량, 홍수, 필요와 도움

북한의 전체적인 상황은 여러면에서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상황과 전망은 때때로 심각하게 달라집니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저희가 현재후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시설들과 그 시설에 있는 환자들을 마음에 두며 사역을 계속하는 반면, 지난 16년동안 나라의 변방의 여러곳을 관찰하며 나누었던 상황들을 통하여 큰 그림을 그리며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를 얻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유엔 기관원과 비정부단체, 그 밖의 보고서를 읽기도 하고, 또 북한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료 사역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여러번의 방문과 토론에 참여하면서 또 다시 지혜를 구합니다. 올 3월 농촌을 방문하면서사람들이 봄에 춘궁기를 지낼때 식량을 대신 할 수 있는-겨울보리, 호밀, 감자-농작물에 대해 널리 퍼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영하로 내려가는 약 40일이 넘는 길고 추운 겨울로 인하여 봄 농작물이 영향을 받으며 봄과 여름의 식량의 부족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북한의 남쪽지방은 여름마다 3 개정도의 태풍이 휩쓸고 가 어려움을 가져와 - 여러해동안 사역을 하였던 시설들에 피해를 주었고, 홍수는 생명과 집, 요양원, 도로와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여러 고장에 피해를 주었던 이번 홍수는 저희 사역지인 여러 요양원의 여름 농작물을 모두 쓸어갔으며, 평균적으로 적어도 삼분의 일에서 반정도의 옥수수와 콩을 앗아가버렸습니다. 농촌 여러곳에서 지역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기는 했으나 지난해에 비해 피해 지역이 그다지 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추수때 거의 5주간을 함께 하여, 감사하게도 날씨가 너무 좋아 흉작이나 손실이 없이 추수하기에 더 없이 좋은 도움이 되었다고합니다(유엔 식량구호단체은 지난해보다 약 8.5퍼센트이상 증산되었다고 추정했으며, 비료 사용이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피천 결핵요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방문

황해도 남쪽지방을 덮친 홍수 피해 가구

(continuted on page 4)

2011년 5-19일 CFK의 확인 사역을 마치고

폴과 케이 레이더, 구세군 은퇴사역자이며 22년간 북한 선교사, 케이는 CFK의 현 이사로 섬기고 있슴

년후 다시 돌아 본 북한에 대한 나의 인상은, 적어도 평양의 시민들만은 이전보다 어느정도 나아보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옷을 입고 있었고, 도로에 차량은 더 많아졌으며, 더많은 차들과 자전거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넓은 도로가 황량하게 비어있어 스산하기도 했지만 다른때에는 차들이 꽤 움직이고 있었다. 때때로 많은 차량으로 호텔을 가기위해 좌회전을 하기가 어려운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나눈 것 처럼, 공항에서 호텔로 가면서 느꼈던 첫 인상은 아직도 내 마음과 기억에 생생하게 어두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로등이 없고, 고층아파트의 몇개 안되는 불빛들만이 보였으며, 상점에 찬란한 불빛도 없었고, 자전거 안전등의 빛도 전등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CFK의 새 차량이 발하는 전조등의 빛으로 평양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인도와 차도를 가로지르며 어두움속에서 다니는 것을 피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어두움은 북한의 삭막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중의 하나입니다.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하루에 2시간정도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난 4년간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열 전기판이 이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중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MoPH동료가 응급처치용 가방에 포함되어 있는 테엽용 회중전등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을때 우리가 방문했던 기관들에 있는 직원들과 의사들, 간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이들 처럼 레버가 감겨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을 보기위해 그를 에워싸며 모여들었습니다. 손으로 레버를 돌릴때마다 그들은 더욱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런 지극히 기본적인 물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 지경을 멀리 벗어나 약 2100마일을 횡단하는 북한 여행에서 우리는 그들의 생생한 일상의 삶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량부족이 있다고는 하나, 적어도 우리가 방문한 곳(황해도지방)에서 우리는 아사지경에 이르는 굶주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추수를 마친 논에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이나 (주로 여인들과 어린이들) 황무해져 버린 언덕의 광경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얼마나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곡물은 정부로 부터 배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CFK로부터 환자에게 필요한 단백질을 얼마나 공급받느냐는 질문에요양원이나 병원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약 60-70퍼센트라고 대답합니다. 그린하우스는 CFK의 사역중 가장 환영을 받으며, 각 요양 기관 자체공급의 약 30퍼센트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여름 장마로 홍수의 피해가 심했던 지역의 씨를 씻어내려의 작황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국제 보고서는 비료의 영향으로 약 8.5퍼센트가량 지난해보다 더 나은 소출이 있었다고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수행원들은 CFK사역에 동기를 부여하였던 후원자의 명단을 소개하는 일과 우리가 한국어로 식사전에 기도를 하는 것을 기쁜마음으로 허락하였다.

우리는 감사와 흥분을 가지고 환자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때론 그들이 손을 내어주며, 사진을 찍을때에는 우리의 어깨위에 머리를 기대기도 하며 약품을 보내준것에 매우 감사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겠다는 말에 감사와 기대의 표현으로 고개를 그덕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가지 인상적인 것은 많은 북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환자들의 안녕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며, CFK의 도움에 매우 감사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 공무원이 그의 사무실에서 사과를 깍아서 하이디여사에게 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요양원의 해변에서 있었던 야외식사는 이세상 어디에서도, 전무후무한 형제애와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떠날 즈음에 한 관계자는 저희 손을 잡으며 "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로 저희같은 노인이 힘든 여행을 하였다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과, 의심, 두려움과 취약한 환경에서 지내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평양 결핵 병원 –소아병동

저희 CFK의 독특한 사역의 방식은 우리가 주는 도움의 질 즉, 신뢰와 진실함, 전문성과 탁월한 기술의 제공,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도움

봉산 결핵 요양원 환자

을 주는 식량, 의약품 그리고 장비는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들을 위하여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기술이나 선물이 전해줄수 없는 것을 전하며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면에서 상황은 우리들에게는 물론 세계에도 더 할 수 없이 불투명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땅을 위해 온세상에서 하는 중보의 열정에 무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CFK사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특권에 감사해하며 사랑으로 심은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어 우리를 움직이셔서 그들의 필요에 동정심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응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기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개성 어린이 병원으로 가져온 손으로 짠 담요를 들고있는 어머니와 아이.

북한에 있는 WHO 대표인 이디오피아 사람, 닥터 요나이 테겐은 “이 나라에서 도로여행을 하면서 CFK사역의 흔적을 보았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CFK는 언제나 현장에 있었고,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계속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주기위한것입니다. 잘될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이미 헌신한 것입니다. 마치 결혼이 헌신인것 처럼, 좋던지 나쁘던지”… 언제나 작은 어린이들과 그 어머니들의 얼굴을 보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언어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매우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사랑과 소망으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시편기자는 “자신에게 실망한 자에게 복이있다, 어려운 곤경중에 있을때 영원이 그들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안전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41:1 .우리는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곤경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계속 붙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로 돌아갑니다. 세상적인 역사에서 십자가는 작은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왕국의 역사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들과 매일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주기도문 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임하신것 처럼 이곳에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그들에게는 그들이 먹을것을)”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우리의 무관심, 자기 중심성, 욕심)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해방(그들에게도 해방을), 이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멘” 라는 말씀이 이렇게 생생한 감동을 준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계속

분명 모든 상황은 1990년 후반 3월 중순의 고통스럽던 어두웠던 날들에 비하면 나았습니다. 특별히 평양의 한 곳은 2012년 4월에 예정된 고김일성의 100주년 기념식때문인지 더 밝고 세련되고 현대화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중의 많은 숫자가 심각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과 가난에 처하여 생존에 허덕이며, 앞으로 다가 올 고난과 불확실한 재난에 방치된 채로 그들의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해져가는 정치적인 쟁점의 영향으로 식량보조에 대한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CFK는 지속적인 보고와 가장 취약한-특히 병든 환자들-결핵환자, 간염환자와 어린이 환자들-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응답할것입니다. 가장 작은자들을 위한 후원과 신실한 사랑을 계속보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물…그들의 입장이 되어

데이비드 사이렌, 소방관/앵커리지 소방소 긴급의료원 (은퇴)CFK 기술 봉사자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때론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며, 이 일로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생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단순한 경험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2010년 봄, 나는 북한 방문을 마치고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고향인 알라스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CFK의 자원봉사 기술자로 여러가지 기술사역으로 북한 방문을 하였고, 몸을 조심했는데도 소화가 안되고 위가 불편한 것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미국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그럴 수 있으나, 며칠동안 푹 쉬고 다시 제게 익숙한 음식을 먹으면 괜찮아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주일을 집에서 쉬었지만 몸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 다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야 제가 장편모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라스카에는 비버에 의해 수인성 기생충이 매우 많습니다. 야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냥꾼들, 산악등반자들, 야영자들 중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경우 감염되는 수가 있으나, 그러나

오랫동안 알라스카에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아픈 적은 없어 이번 고통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의사는 이 감염에 주치료약인 프라질을 처방했고 일주일 치료 후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일반 용량으로는 효과가 없었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지만 다시 재발되었습니다(이번여름동안 2번이나 더). 이 고통은 올가을에 예정되었던 CFK기술 사역으로 북한 방문일정을 결정할 즈음에서야 사라져 정상적인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편모충 감염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않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약 5개월동안 저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존의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주 걸리는 해충 감염으로 제 체중의 약 15%에 해당하는 23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그들처럼, 저는 그냥 배만 움켜지고서 나아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생활은 일과 계획, 꽉 짜인 일정, 방문자들 그리고 여러가지 해야할 모험들이 있었습니다-특히 알래스카의 짧고 아름다운 여름기간동안은-. 그래도 바깥 활동을 많이 해야하는 춥고 어두운 겨울이 아닌 여름이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진단과 치료약이 없는 편모충과 편모충이외 그 밖의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는여러가지 전염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변화의 기회는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위해 우물들이 파지기 시작했고, 물론 더 많이 필요합니다. CFK는 요양원 수로 사역을 완성했고, 주변마을의 샘물을 끌어들여 깨끗히 정수하여 중력시스템으로 마을과 요양원에 다시 공급하게 되어 그 해 동안 지역주민과 환자 모두에게서 모든 위장질환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저희 CFK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사와 자원들을 배가하셔서 북한 사람들에게 여러방법으로 축복과 도움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시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창조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를 주시며, 한없이 도움을 주시는 그 창조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분이 하신 창조를 사랑하시고, 북한을 비롯 온 세상 곳곳에 오늘도 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CFK가 북한에서 일하는 이것도 이 세상 끝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일중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보면 CFK사역은 다른 토양에 이미 닦아진 길을 바꾸는 일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싸우는 척박한 땅에 새로운 길을 닦는 독특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안에서 북한땅에서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심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2012년 계획

고 김일성 100주년 생일 거대한 기념행사를 준비해야하는 부담과 북한 내부의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의 중심에서 CFK는 여러 기독교적 사역의 계획과 활동을 통하여북한 주민들과 가까이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망의 선물들" 소식지를 참고하세요)

- 저희는 스텐포드 대학과 베이 에어리어 컨소시움 동료들과 계속적으로 동역을 하며 국립결핵 연구 실험실의 국제 인증에 필요한 단계와 함께 더 나은 기술연마를 위해 필요한 집중교육을 위해 자원하는 전문봉사자들과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역을 위해 지정되어진 헌금이 있으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 사역에 지속적으로 후원할 후원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저희는 국립 결핵 연구 병원에 더 광범위한 기술교육을 위하여 기존 1층건물 위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위한 연수센터를 건축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필요하고 매우 유용한 사역이라고 보고 있으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자금을 마련하여 2012년에 완성, 이 방면에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 연수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 깨끗한 물을 위한 수로사역은 병을 예방하며, 의료시설에 있는 환자와 직원들의 오랫동안 소원을 이루어주며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이 꼭 필요한 지역을 여러곳 정하여 놓았고, 우물을 파는 일과 이 일에 따른 자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는 데로 많은 곳에 수로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 또 저희는 B형 간염예방주사 사역을 맡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소요될 자금과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그린하우스 사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먹을 거리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자금이 허락대는데로 더 많이 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또한 그린하우스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위해 여러지역에서 교육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저희는 물건을 받고, 포장하고, 컨테이너에 넣으며 또 기술사역을 위한 자재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스캐롤라이나에 새 CFK 창고를 짓는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 자금과 필요한 물품들이 되어지는데로, 저희는 정규적으로 식량, 의약품, 담요, 요양원 보수룰 위해 필요한 공사자재(문, 창문, 타일, 지붕재료 등)의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신실한 후원은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하는 일을 하게 할것입니다.

Inside:

- CFK 2011년 한해를 돌아보며
- 드와이트 린튼 기념 차량
- 식량, 수해 구제 물품
- CFK 확인 방문사역을 마치고
- 맑은 물…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 2012년 계획

이번 여름동안 저희 CFK오피스에서 인턴으로 수고하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덕택으로 저희 CFK의 페이스북이 만들어 졌고 (Christian Friends of Korea로 찾아보십시오), 파이브투 재단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후원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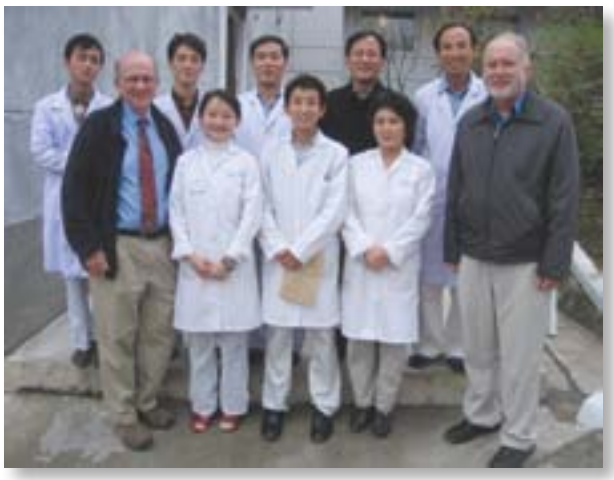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P.O. Box 936 • Black Mountain, NC 28711

ADDRESS SERVICE REQUESTED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창연 결핵 요양원 아래 해안가에서 식사



국립 결핵 연구 실험실의 직원과 함께한 베이 에어리어 결핵 컨소시움의 짐 멕레프린과 에디 데스먼드.

CHRISTIAN FRIENDS OF KOREA

그리스도 조선인의 벗들은 1995년 설립된 면세 해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로 교육, 인도적인 봉사와 기독교적인 프로그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CFK에 내시는 헌금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세금공제를 받으십니다. CFK는 증권이나 다른 형태의 헌금도 받습니다. 수표 수신자를 "Christian Friends of Korea"로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CFK의 사역에 대해 알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Christian Friends of Korea
PO Box 936
Black Mountain, NC 28711

Website: www.cfk.org
Email: cfk@cfk.org
Tel: (828) 669-2355 Fax: (828) 669-2357